

치과의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 캐드캠, 그 다양한 활용법

원 현 두 / 잠실이사랑치과

최근 몇 년 사이 치과 치료 특히 보철치료 분야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장비나 이를 활용한 진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의 치과 치료는 이전의 아날로그 방식의 치과 치료에 비해서 정확성과 효율성, 환자가 느끼는 편안함, 그리고 의사소통의 용이함 등 여러가지 장점을 갖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외에 디지털 방식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진료의 대상을 데이터화하여 저장하고(스캐너) 이를 가공하거나 변형하여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수정하고(CAD) 또 그것을 장비를 이용하여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CAM).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치과의사나 기공사의 손으로 구현해야 했기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작업들을 디지털방식에서는 보다 간편하면서도 폭넓게 시도하고 구현해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디지털 방식을 이용하여 진료실에서 행해지는 진료 내용은, 예를 들면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지대치 인상과 이어지는 지르코니아 또는 세라믹 보철물의 제작,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나 보철물의 제작 등 몇몇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디지털 방식의 진료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 개인 병원에서 디지털 진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장비를 다 갖추지 않아도 기존의 일반적인 치료술식에 디지털 방식을 접목하는 것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보철치료시 다양한 부분에서 디지털 방식을 적용하여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학력 및 경력

- * 치의학박사
-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보철과 수련
-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보철과 외래교수
- * 보철전문의, 인정의
- * 2021 SIDEX 포스터 대상
- * 2022 SIDEX 포스터 김윤관특별상
- * 현, 잠실이사랑치과의원 원장